

겨울철의 사양관리 (3)

- ...계절적인 난가 하락과 추위로 인한...
- ...산란율 및 증체율의 감소는 피할 수...
- ...없는 난판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
- ...에 관리법방을 재점검하여 소홀함에...
- ...서 오는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강 천 득

<유리브리드 원원종 농장>

6. 동기간의 질병대책

겨울철에 다발하는 질병의 대부분은 호흡기 계통의 질환으로서 예를 들면 C.R.D 코라이자 전염성기관지염 곰팡이성폐염, 디프테리아형계두 뉴켓슬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소화기성질환으로 콕시듐 등의 피해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대부분 보온위주의 부실한 관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는 질환으로 통풍불량은 한냉스트레스에 접쳐 닭의 체력을 약화시킴으로서 호흡기에 친화성을 갖는 각종 세균의 침입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환기불량시에는 동시에 사내습도를 높여 특히 평사의 경우 깔짚의 수분함량이 높아 지므로서 중대추기에는 콕시듐이나 곰팡이성 질환을 유발시킬 염려도 있으므로 사내 습기 배제와 건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환기가 불량하여 실내환경이 악화되면 사료효율의 감소는 물론 채식량이 줄어들며 이에 호흡기질환이 침입할지는 섭취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므로 C.R.D 예방을 위해서 또 사료효율의 개선을 위해서도 한냉스트레스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환기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두접종을 꼭 실시해야 한다.

계두 미 접종계군은 호흡기질환의 감수성이 높을뿐 아니라 증추는 야간에 틀바람이 많을 시 점막형 계두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므로 늦가을이나 겨울추는 1~2주에 1침, 3개월령시 그침으로 계두의 보강접종을 권장한다.

그리고 뉴켓슬은 겨울철에 감염율이 높은 질병이므로 산란제는 평시보다 접종주기를 1

개월정도 앞당기고 부로일러의 경우는 3일, 3주령의 2회접종을 실시함이 안전하다.

겨울철은 타 계절보다 바람에 의해 부유(浮遊)하는 세균들의 이동이 용이할뿐 아니라 근래와 같은 난동이변(暖冬異變)의 기후시엔 균의 번식이 증가하여 관리미스나 계군의 건강에 조그만 틈이 갈때는 언제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양관리의 개선 예방접종의 이행 낫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야간점검도 더욱 신경을 써 일몰시의 창문조정, 소동후의 닭의 호흡음을 주의깊게 청취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호흡기질환의 증상은 질병의 종류나 증상의 진단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개구호흡(開口呼吸) 이상호흡(골골거리거나 기성을 냄), 콧물, 얼굴이 붉는 것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심자도 어느정도 식별이 가능하므로 일상적인 점검과 예민한 관찰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불행히도 어느 계군이 이러한 질환에 감염되었을 시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타 계군과의 격리를 강화하고 정상계군의 사내소독은 물론 음수소독을 수행하며 영양제와 항생제의 예방투여를 실시함과 아울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할 것이며 투약의 과정에서도 약의 효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관리와 환경여건의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며 미련없는 과감한 도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계경영의 성패는 고차원적인 지식이나 학술적인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사양관리의 이행과 환경위생의 철저에 있음을 명심하자. —끝—